

2006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가 다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넘쳐난다. 이번 지방선거는 1952년 이후 8차 선거이고 동시선거로는 1995년 이후 4차이다. 전국에 걸쳐 386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로 모두 6표를 행사하게 된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광역의회와 같이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투표하고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따라 기초비례대표의원 배정되고, 지역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지만 지역 기초의원 의원 선거구당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엔 선출되는 지방의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유급제가 실시된다. 이 때문인지 고학력 전문가 출신의 출마가 많아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선거판세 또한 이미 알려진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양상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

심은 다른 선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점점 하락하는 양상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선거 판세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으며 2개 지역에서도 접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자 세상보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 '뒤'를 생각하자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지역은 호남지역뿐이다. 유권자들은 직접별로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기준으로 일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은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호남 지킴기에 급급하며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국민중심당은 충청권에 올린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자체보다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4개월 후 18대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도 6개월 후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 현재의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지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그렇지 않다. 내년 대선까지 정계개혁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48%의 의원들이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52%의 의원들은 2007 대선 전 제 3의 정계개혁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통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국회의원의 35%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며 뚜렷한 차기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전개될 정계개편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향후 정계개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7 대선까지 이어질 정계개혁 변화의 서막이 될 2006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불자의 눈

금어(金魚) 만봉(萬奉) 스님이 입적했다. 세수 96세. 평생을 붓 하나로 붓다의 모음(母音)을 세상에 전하더니, 이제 먼 길을 떠났다. 우리 불모(佛母)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보는 것 같다. 스님은 10대부터 금어 예운 스님의 문하에서 붓을 들었다. 1926년 봉원사로 출가한 이래 금어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길, 그러나 외롭고도 어려운 길이었다.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의 길을 겪으면서 그리고 서구문화 팽창시대를 겪으면서 전통불화를 지킨 그의 일생은 새삼 경이로워 보인다. 아무리 정부에서 스님에게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정장 예능보유자로 지정(1971년)하여 기린다 해도 스님의 빛나는 행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지난해 6월, 인사동 모란갤러리에서 연 스님의 개인전을 관람했다. 그리고 보니 스님의 마지막 개인전 자리였다.

만봉 스님이 남긴 것

95세의 화가답지 않게 전시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저히 95세 현역화가의 작품 발표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상단행화, 감로행화, 팔상도, 나한도, 관음보살도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보았다. 전통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도도 사색하지 않았다. 정말 개인전의 제목처럼 '현세에 꽃 피우는 극락'이 따로 없었다. 붓으로 보여준 극락, 스님은 노구를 이끌면서 이를 성취한 것이다.

나는 지난 1980년대에 스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 스님의 작품들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 불화의 위상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고민을 기억에 담기도 했다. 스님의 마지막 전시장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은 것 같다. 세대가 어떻든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불어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금이 만봉 스님은 우리들의 길을 떠났다. 하나의 전통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의 전환점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에 어떤 미대생이 만봉 스님의 문하에서 전통 불화를 수학하고 작가로 성장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이제 불화의 전통성 담보와 더불어 우리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 시대의 불화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대해 본다.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 윤범모(미술평론가)



이렇게 들었다 성폭력

"남이 내 어머님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형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광불보은경>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원상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여성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해광 부장판사는 5월 18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기숙사 보육교사였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4.5월 2차례에 걸쳐 근무중인 학교에 다니던 청각언어장애학생 A(시 12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참고교육학부모회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유아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법감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단발성의 강력한 처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친고죄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젊은 언젠가 열려 있어야

목포 유달산의 모 사찰 입구에서는 일반인은 화장실을 사용을 금하니 공원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30여 년 전 목포에서 제일 큰 절이었고 큰스님이 계셨던 절이라 어린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곳이다. 그런 절 입구에 부처님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급해도 절에서 불일을 볼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시를 못할망정, 화장실조차도 개방 안 한다면 그 절 스님들은 또 교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이 든다. 일상이 힘든 일반시민들이 언제든 대웅전에 들러 예배하고 기도하며 쉬어갈 수 있게 절의 모든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만약 문화재 절도나 이교도들의 방해가 무서워 대내외도 절을 개방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생구제를 위한 포교를 포기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덕기가 무서워 장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전성일(전남 목포시 죽곡동)

대구 실달유치원 자료 찾아오

47년전 대구시 실달유치원의 자료를 구합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 2가 소재의 실달유치원을 기억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관련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7년 전 제7회 졸업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기억과 그때 당시 사진이나 자료를 찾습니다. 사찰에 관한 자료와 유치원에 관한 자료가 급히 필요 합니다. 반드시 사진이나 문서자료가 아니어도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의 구술도 괜찮습니다. 만약 문화재 절도나 이교도들의 방해가 무서워 대내외도 절을 개방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생구제를 위한 포교를 포기

다동이(부다피아)

이천수 교수 해직 선교사학교 잔재

기독교 재단인 강남대가 이 학교의 이천수 교수를 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해직의 사유가 기독교 재단의 교수가 방당에서 절을 했다는 이유라는 말에 더 할말을 잃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종교간의 화해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인데도 우리사회 구성원에게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개화기시대 선교사 학교'들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대학의 건학이념이 불교든 기독교든 대학의 강의실에서 특정종교를 전도하거나 포교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수 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단지 기독교를 가르치던 교수가 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단에서 쫓겨 내려간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이다.

김동성(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도아주세요

스님 모시고 활동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습사무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불교와 녹차'라는 주제로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우회 등이 자꾸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생긴 수습사무원들의 불자회입니다.

그런데 활동 경험이 전무한 저희들은 어떻게 불자회를 끌어가야 할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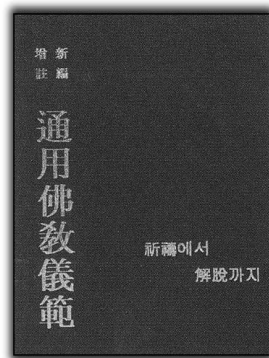
적절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51기생 불자회에 도움을 주실 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뜻이 잘 전해져서 불제자들의 모임이 자리를 잡기를 기원합니다. 018-263-4298, bravekorean@naver.com

김건민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입교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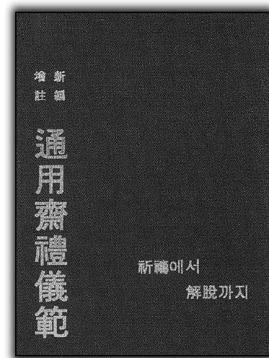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탈보살경의식
- 제8장 재탈보살 파발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나무마하얀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서 유인이 가장 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義)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師範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대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가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禮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발행처 : 도서출판 도승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